

모바일 스마트시대의 중심축



과거 10년이 인터넷 혁명이었다면 향후 10년은 스마트혁명이 열리며, 모바일은 스마트 시대의 중심축을 이룬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11월 8~10일까지 서울에서 '2020년 스마트라이프 혁명'을 주제로 「Global Mobile Vision 2010」 행사를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지식경제부 조석 성장동력실장, 청와대 오해석 IT특보 등 국내 인사와 Telkomsel 사르와또 수타르노 사장 등 글로벌 리더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ETRI를 비롯한 미니게이트, 아이온커뮤니케이션, 제니텀 등 기업들이 개최식에서 글로벌 모바일 제품을 시연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패드 대항마로 국내 출시를 시작한 삼성 갤럭시탭을 비롯하여, 모바일오피스, 증강현실, e-러닝, 모바일 플랫폼 등 다양한 미래 체험과 볼거리가 제공했다.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개최사를 통해 차세대 휴대폰은 범용OS가 기본적으로 탑재되고, 다중통신,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오감기능 등 인체공학기술을 적용한 '착용 가능한 폰(Wearable Phone)'으로 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모바일 비즈니스 행사로, 글로벌 이동통신기업 150개사 및 국내기업 90개사가 참가했다. 글로벌 모바일 포럼에서 스마트라이프의 미래상이 제시되었다. 또한,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 상담회, VC(Venture Capital) 상담회, 모바일 분야 해외 진출 컨설팅 상담회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다양한 비즈니스가 펼쳐졌다.

모바일 기술, 서비스, 주요국 시장 등 3개 분야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기술 분야에는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4G, 유무선통합(FMC), M2M 등 인프라

및 HW 기술, 스마트폰 OS, 태블릿 PC, 웹브라우징, 보안 등 플랫폼 기술 등이 발표되었다.

서비스 분야에는 스마트워크, 스마트 오피스, 모바일 헬스 등 스마트모바일 비즈니스 서비스와 증강현실, 광고, 모바일러닝, 게임, 모바일 TV 등 모바일 엔터테인먼트가 제시되었다. 주요국 시장 분야에는 인도, 일본, 중국, 브라질, 중동 등의 모바일 산업 및 전망 등이 소개되었다. 90개 국내기업과 해외바이어가 참가하는 전시상담회를 비롯하여 글로벌 휴대폰제조사 상담회, VC 상담회, 모바일 해외진출 컨설팅 상담회 등 부대 프로그램도 개최되었다.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 등 글로벌 모바일기업 150개사와 국내기업 90여개사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약 1,000건의 상담 및 5억불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번 전시상담회에는 단말기, 태블릿PC, 중계기, 모바일 소프트웨어, 부품 등 모바일 제품 다수가 출품되었고, 이는 우리나라가 휴대폰 제조 뿐만 아니라 통신장비업체를 비롯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업체까지 광범위한 이동통신 산업 가치사슬을 형성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북미, 인도, 일본, 중국 등 해외 모바일 시장 진출 전략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모바일 분야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 지역 진출을 위한 필요 정보, 주요 제품 경쟁력, 주요 사업파트너 등 진출 전략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모바일 대·중소기업 협력포럼,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 전문상담회 등도 개최되었다. 모바일 대·중소기업 협력 워크숍에서 KT, LG전자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15개사 간 거래선 발굴 상담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노키아, HTC, Haier 등 14개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와 국내 모바일 부품기업, 모바일솔루션기업 30개사간 전문상담회를 추진하였다.

이번 Global Mobile Vision 2010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모바일 분야의 미래 모습을 전망하고, 국내외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하는 장으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이번 행사가 동북아의 대표적 모바일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만원SK텔레콤사장은 모바일스마트 글로벌 트렌드 및 전망과 전세계적인 스마트라이프 서비스 동향을 발표하였고, 김홍만ETRI원장은 스마트라이프를 이루는 미래IT기술로 콘텐츠, 크로스플랫폼, 멀티미디어 터미널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모바일 R&D전략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홍원포삼성전자부사장은 스마트폰 혁명은 현재진행형이고 단순한 열기를 넘어 인터넷 혁명을 계승하고 있다. 차세대 모바일 단말의 모습과 스마트TV의 미래, 클라우드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고현진LGU+부사장은 이동통신과 비통신의 융합서비스의 비래, 이동통신기술과 다른 사업에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모바일 버티컬 인터넷 파트너사업의 비전과 의료진설 등 스마트라이트 적용 방안을 발표하였다.

사르와포스타르노TelkomselCEO는 신흥개도국에서 바라본 스마트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라이프스타일 공급자로 변모중인 개도국 통신사 트렌드를 말하고,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개도국 이동통신에코시스템 및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발표하였다.

수지위HPCTO는 모바일 컴퓨팅을 통한 스마트네트워크, 스마트혁명 가운데 변화되는 문화와 기술, 사용자의 경험을 만족시키는 휴대단말과 클라우드의 중요성을 말하였다.